

Yochai Benkler,

The Wealth of Networks: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
(New Haven and London: Yale University Press) Chaps.1-7.

발제: 김 상 배



- Yochai Benkler: Bruce Ackerman, Sterling Professor of Law and Political Science, Yale University
- Major: informa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nvironment, communications law, and intellectual property

- o 선진경제에서는 두 개의 parallel shift 가 발생
 - 첫째, 정보, 문화, 상징의 생산에 관련된 경제의 부상
 - 둘째,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컴퓨터 기반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등장
 - 이 중에서 특히 후자는 정보/문화 생산의 부문에서 급진적으로 탈집중화된 형태로 조직된 '비(非)시장적(non-market) 생산'을 가능케 함
 - 이는 선진경제의 주변이 아닌 중심(core)에서 새로운 패턴의 생산이 등장했음을 의미 --> 또한 이는 재산(property)나 시장(market)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함께 '사회적 생산과 교환(social production and exchange)'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
 - 이러한 과정에서 벤클러는 네트워크 정보경제(network information economy)를 추동하는 사회세력(social force)의 핵심으로서 '개인(individual)의 증대된 역량'에 주목 --> 개인적 자율성(autonomy)의 증대 cf. '네트워크 지식경제'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?
- o 이러한 맥락에서 벤클러는 '협업적이고(collaborative) 네트워크형 생산'의 성공을 고찰
 -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peer production과 electronic share economy 를 찬사 --> 이는 open-source collaboration 밀접히 연관
 - 다시 말해, 비시장적 맥락에서 협업적 공유(collaborative sharing)를 기반으로 하는 동료생산(peer production)의 새로운 형태가 출현함에 주목--> 이러한 변화는 기술발전(특히 인터넷)에 의해서 가능해짐 --> 다소 기술결정론적 유토피아주의(technological utopianism)에 입각
 - 이러한 벤클러의 분석은 두 가지 성향의 조합을 바탕으로 함
 - 첫째는 기존의 조직화된 정치(organized politics)에 대한 회의주의'skepticism'
 - 둘째는 비지배적이고(non-dominated) 자발적인(voluntaristic) 네트워크에 대한 '낙관주의(technological utopianism)
 -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오픈소스 운동에 대한 기술 유토피아주의적 입장을 견지
 - 현 시대는 정치경제의 행위자로서 개인과 비시장적 affiliation의 증대하는 효능성으로

특징지어진다는 주장

- 이러한 벤클러의 입장은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변화한 ‘재산권’에 대한 입장을 기초함
 - 산업경제와는 달리 정보경제에서 주요 원료(raw materials)는 공공재(public goods)
--> 정보, 지식, 문화 등이 그 사례
 - 그런데 이들의 실제 marginal social cost는 거의 영(zero)에 가깝다
 - 만약에 규제정책이 proprietary business models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값비싸게 만들지 않는 한, 이들 원료를 취득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음 --> 그의 국가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
 - 이러한 분석의 큰 저제는 역시 생산의 산업양식 vs. 정보경제의 차이에 대한 인식
 - 사실 산업경제에서 효과적인 경제행위를 위한 자본비용이 ‘공유(sharing)’를 주변화시켰다.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자본투자의 재구조화의 부상은 적어도 그 효과를 뒤바꾸어 놓고 있다. -->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출현
 - 이를 바탕으로 non-proprietary strategies 가 정보생산에서 담당하는 중요성을 지적
 -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형태의 ‘비시장적 생산’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? material gain이 아니라면 psychological well-being and gratification? social connectedness?

- 네트워크 정보경제와 자유민주사회의 상관관계, 그리고 민주주의(democracy)
 -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다수의 민주적 정책결정이라는 메커니즘과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관계? -->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문제?
 -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“대중적 공론장(mass-mediated public sphere)”으로부터 “네트워크 공론장(a networked public sphere)”으로의 shift를 가능케 함
 - 이러한 shift도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데 참여하는 개인의 증대된 자유를 바탕으로 함
 - 일종의 “인터넷의 민주화 효과”가 발생 --> 인터넷이 정치적 공론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? 인터넷은 공론장의 구조를 개선시킨다
 - 이러한 비시장적 동료생산적 과정을 통해서 mass-mediated한 메커니즘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filtration과 accreditation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.

- 네트워크 정보경제와 정의(justice), 그리고 인류발전의 문제
 -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부상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정의와 인류발전에 요구된 기본적인 조건을 개선한다.
 -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산물이 non-proprietary 하기 때문
 -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“those who are least well off” 들에게 최중재의 형태로 제공된다.
 - 그리고 이러한 기본자원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의 증대는 정보생산에 대한 참여를 개선시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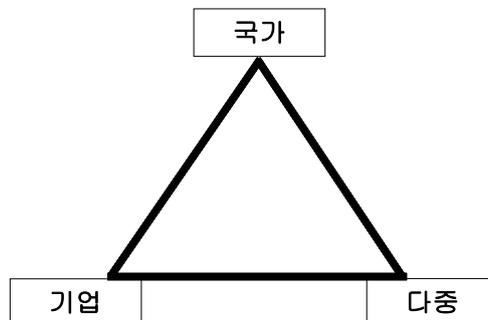
- 네트워크 정보경제와 문화의 민주화
 -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좀 더 비판적이고 self-reflective한 문화의 부상을 가능케 함

- > 이는 인터넷이 어떻게 문화를 민주화하느냐의 문제
 - 문화가 좀 더 democratic, self-reflective, participatory 하게 됨
 - 사실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매력적인 문화생산시스템을 제공한다
 - 문화를 좀 더 투명하게(transparent) --> 문화를 좀 더 유연하게(malleable)
 - 산업시대의 문화생산에서는 크게 억눌렸던 a new folk culture의 등장 --> 이는 개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줌
- o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
- 이상의 벤클러의 접근은 비시장적 관계(non-market relations)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강조하고, 반대로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(즉 만약에 그 역할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역할로 인식) 그의 입장으로 연결
 -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단순한 자유주의자(liberal)라기보다는 ‘자유주의론자(libertarian?)’ 또는 무정부주의자(anarchistic)의 테제로 이해될 수 있음 --> 그런데 상호부조(mutual aid)의 역할에 주목하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론(libertarian)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정부주의적
 - 20세기 경제에서 국가는 개인의 희생을 대가로 시장 기반의 산업을 지원해 왔다 --> 그런데 그러한 개인이 바로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가능케 했다
 - 그런데 이는 반국가적 철학(anti-statist)에만 기원을 두는 것은 아니고.. 자발적이고 개별적이며 협력적인 행위를 위한 제도적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많은 자유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에 기원을 둬 --> 다시 말해 이것이 국가의 의도적 공공행위를 통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
- o 벤클러는 국가와 강력한 시장세력의 동맹에 대항해서 비지배적인(non-dominant)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
- 진정한 자유와 부가 발견되는 것은 자발주의(voluntarism)를 건설하는(구성하는) 동력인 새로운 기술네트워크에서 이다.
 - 국가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하고, 적어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
 - 일단 네트워크경제가 안정화되고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사적행위(private action)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, 국가는 비시장적 행위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해야
 - 이렇게 보면 국가의 공공성과 관련된 벤클러의 입장은 다분히 antagonist 적 --> 국가의 적극적/긍정적 역할을 무시하거나 의심
- o 벤클러에 의하면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변환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인 권력과 돈의 대분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
- 할리우드, 음반회사, 방송과 통신업계의 ‘골리앗’으로부터 ‘네트워크화된 다윗들’에게로?
 - 이러한 맥락에서 the institutional ecology of the digital environment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. --> battles over 'property,' 'commons,' 'physical layers'

- 궁극적으로 이 책은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적 비전의 의미도 가짐

<토론>

- o market as a selection mechanism처럼 network가 일종의 selection mechanism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가?
 - 자유의지를 가진 ‘전체의지’를 넘어서는 ‘일반의지’가 네트워크라는 메커니즘의 도입만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?
- o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힘을 얻은 ‘개인(個人)’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?
 - 합리적인 개인(rational individual)
 - 수동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공간을 찾는 ‘사인(私人)’
 - 시민(市民, citizen) or 네티즌(netizen)
- o 벤클러는 이러한 개인의 부상을 “경제” 영역에서 새로운 정보생산의 모델로서 접근하고 있는데...
 - 정보생산모델 vs. 정보소비모델, 그리고 소비를 통한 정보의 재생산모델의 차이?
 - 1990년대 전반과 2000년대 후반의 차이?
- o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힘을 얻는가?
 - network power로서의 non-market 맥락의 개인
 - network power로서의 지구화된 다국적 기업의 보이지 않는 힘
 - 그리고 이러한 network power의 논의를 ‘민주주의’라는 다분히 normative 한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?
- o 결국 네트워크경제(기업) vs. 네트워크화된 개인 vs. 네트워크화된 환경에 처한 국가의 삼자구도에서 문제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?
 - 다른 말로 하면 지구화된 경제세력(informal empire), 디지털 다중(digital multitude), 네트워크 지식국가(network knowledge state)의 삼자구도
 - IT분야를 보면, 마이크로소프트의 윈텔제국, 리눅스의 오픈소스운동, 미국이나 유럽정부의 반독점정책의 삼자 구도



- o 이 책의 논의를 촛불집회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? 그리고 “인터넷권력 2.0” 프로젝트는 어떻게 가능할까?